총지신문

총기 52년2023년 8월 1일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제 285 호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비로자나부처님과 함께 개구진 함박웃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회 한마음 여름캠프 개최



불교총지종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2023년도 '한마음 여름캠프'가 4년 만에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용인 에버랜드 일대에서 개최됐다. 방학을 맞아 학교와 가정을 떠나 캠프에 참석한 동해중학교 1학년 남성민, 이현준, 김태호(맨 왼쪽부터) 학생이 카메라를 향해 개구진 표정으로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제165회 임시 중앙종의회 개최

법황사, 흥국사 보수 공사 승인



제165회 임시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를 비롯 한 종의회의원 그리고 통리원장 우인 정사 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 후 종 의회의장의 개시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광주 법황사와 전 주 흥국사 긴급공사 승인의 건이 상정됐다. 노후로 인한 법황사의 누수가 올 장맛비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점과 흥국사 역시 외부 화장실 및 계단 철거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 종의회의원들은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안전사고 방지와 사원 관리를 위해 통리원 집행부의 관리감독 하에 공사의 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상지화 지수 5·7재 천도불공법회 봉행

유가족, 종단발전기금 3천만 원 희사







상지화 지수 천도불공법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본산 총지사에서 종단 상장례법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지난 6월 17일 세수 99세, 법납 47세로 입적한 상지화지수의 49재는 8월 7일이나 월초불공으로 인해 이날 5·7재로 사부대중과 함께 엄수하였으며, 각 사원에서는 49재까지 불공 후 회향키로 했다.

이날 법회는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해 전국 스승과 유가족, 교도들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 공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부대중의 원력으 로 상지화 지수 영식의 극락왕생과 구경 성불을 지성으로 발원했다.

종령 예하는 인사말을 통해 "상지화 스 승님은 총지사 근무 당시 함께 계셔서 더 자주 가까이서 뵙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 다."며 "다른 스승님들과 자비심이 남다 르셨다. 그 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자녀 교육에 형편 이 어려우신 스승님들에게 남모르게 학자 금 지원도 많이 해주셨다. 마음에 오래 남 는 스승님으로 남아계신다."며 고인을 회 고했다.

한편 천도불공법회 후 유가족들은 종 단에 종단발전기금 3천만 원을 희사했다. 장남 오상수 씨는 기금 희사 후 인사말에 서 "어머님이 60년을 넘도록 일구월심 총 지종에 승직자로 계시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하셨고, 자식들도 그 가르침으로 잘 살아 왔습니다."며 "종령님을 비롯해 오 늘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함께 빌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동참해주신 스승님과 교 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들도 어머니의 유지를 잘 받들어 불심으로 살 도록 하겠다."고 희사의 변을 대신했다.

종/조/법/어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 지면안내

3면 지혜의 눈 / 불교와 68혁명

4면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5면 왕생법문 / 훌륭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8면 남혜 정사의 위드다르마(2)

제43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총기 52년 9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역삼동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②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총지 돋보기(5)

불교총전생



1975년 초판본

불교총지종의 창종은 총지종사에서 가 장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대사 인 연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 나 창종 전의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종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창종을 앞두 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불사 중의 하나가 종단의 교전을 만들 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편찬에 전력하신 것입니다.

종단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 보왕 경』 전 4권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전 10권을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의 『밀교 장경』이 탄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밀 의 경전에서 요목별로 발췌하여 역경을 하셨는데, 바로 『불교총전』입니다. 스 승들에게는 교화에 필요한 교리서로, 교 도들에게는 수행의 지침서로, 불교 입문 자들에게는 길잡이로서 오늘날까지 활 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총전』의 초판 발행일인 총기 4년(1975년) 12월 24일 교사에 따르면 "밀교와 현교의 각 경전 중에서 수도와 세속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 번역하 여 종목별로 편찬한 경전으로서 목록을 무쳐서 속히 잦아 볼 수 있게 하고,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였으므로 전수와 정 사들의 교화에 필요한 교과가 되고 불교

2004년 개정판 불교총전

초학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책자다. 이 경전을 시사문화사에서 3,000부를 인 쇄하여 각 사원 서원당에 발송 반포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총전』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전에 실린 삼천대천의 법문 에 앞서 종조께서 직접 쓰신 '머릿말'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조께 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편찬하셨는지 본문을 인용해 봅니다.

불타의 설법은 여러 나라의 문자로써 번역되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도 그 많은 경전들이 우리말이 아닌 한역본 그대로 전해져 왔다. 원래 불타의 교설은 심오하고도 호한(浩瀚)한데다가 어려운 한역(漢譯)이기 때문에 국민 대 중이 보기 어려워서 이것을 특별히 연구 하려는 학자가 아니면 읽어볼 생각을 하 지 못할 뿐 아니라 <중략> 어떻게 하면 불타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우리말로 바르고 알기쉽게 전달할 것인가? 법해 (法海)의 마니보(摩尼寶)를 어떻게 캐낼 것인가? <중략> 불교는 어려운 일을 성 취하는 것이 곧 정진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음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생각해 볼 때 어렵다고 그만 둘 수는 없다는 것

『불교총전』 P5 머리말 중에서

"진정한 방생은 반목과 질시로부터의 해탈"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총기 52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해탈절인 7월 15일 전국 의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됐다. 이 기간 동안 사부대중은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무연중생의 극락 왕생과 뭇 중생들의 해탈을 서원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회향 유시문을 통해 "방 생이란 어류방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방생에서 마음의 방생, 일체 존재에 대한 방생은 물론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방생까지 모두 포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너와 나의 대립에서 벗어나고 반목과 질시로부터 서로 해탈케 하는 것 또한 진정한 방생이라고 할 수 있 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공생공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 사회가 좀 더 넉넉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한 다."고 밝혔다.

한편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 산 사태 등의 자연재해 위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구, 사원별로 지역 상황에 맞도록 진행했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 법일 정사)는 거제 일대에서 봉행하기로 했 던 교구합동법회를 전날인 16일 전격 취소하고, 각자의 법석에서 이 번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 수 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을 기원했다.

본산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는 30여 명의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 데 17일 강화 전등사 무설전에서 법회를 열었다. 록경 정사는 봉행 사에서 "오늘 이 법회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어 인간방생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며 뜻 을 전했다. 법회를 마친 후에는 강화평화전망대로 관불에 나섰다.

서울경인교구 소속 관성사(주교: 우인 정사), 밀인사(주교: 덕광 정 사), 실지사(주교: 서강 정사)는 17일 양양 휴휴암에서 합동으로 법회 를 봉행했다. 40여 명의 교도들과 함께 광어, 놀래기 등 60여 마리의 어류방생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력이 만 중생에게 두루 하길 발원했 다. 또 벽룡사(주교: 승원 정사)와 지인사(주교: 법우 정사)는 17일 각 각 인천 하나개해수욕장과 영흥도 일대에서 관불행사를 가졌다.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16일 개천사(주교: 법등 정사)는 경주 감포 에서 방생법회를 진행했다. 농어, 도미, 우럭 등 500여 마리의 어류 를 방생하며 삼계 중생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김상미 기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단협, 조계종총무원장 당연직 회장으로

제2차 이사회·60차 임시총회서 정관 개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조계 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총무 원장, 이하 종단협)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 서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임시총 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 롯해 재적이사 39명 중 35명(위임 4명)이 참

석한 가운데 '회장은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 원종단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해임한다.'는 기존의 정관을 '회장 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또 기존 3년 단임이었던 사무총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천태 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부회장으로 변경했으며, 한국불

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대한불교 화엄종(총무원장 화응 스님)을 이사종단에 서 상임이사 종단으로 각각 승격했다. 아울 러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과 수해민 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종단협은 오는 11월 6~8일 서울 봉은 사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류사회 공생 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23차 한 중일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애종심과 공심으로 종단 중흥발전'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취임식에 참석 중인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좌),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식이 지 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 청련사에서 봉행됐다.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 절 인연에 따라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확신한다."며 "종도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종심과 공심으로 종단의 중흥발전을 위해 총무원장 출사표를 던질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책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

이날 취임식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록경 정 사를 비롯해 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종단 관계자, 송교계, 정관계 인사 능 2전 여 명이 잠석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중앙종회의원, 양 주 청련사 주지 등을 지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총무원장 선 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불교와 68혁명

지혜의는

전간기, 과학발전이 모든 존재 상의상존성 밝혀 현대사회 시작의 사상적 배경은 불교 원리 닮아

전간기(戰間期)는 1918년부터 1939년 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19세기 산업 혁명 이래 특히 1968년 68혁명까지의 시 기를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합니 다. 대략 19세기 중반부터 1914년 제1 차 세계대전까지를 '벨 에포크(La Belle Epoque)'라고 하고, 이어서 제1차 세계대 전(1914~1918), 뒤이어 1939년 제2차 세 계대전까지의 20년간을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그리고 제2차 세계대 전(1939~1945)과 68혁명으로 크게 구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1, 2차의 대전에 관심이 집중돼 많은 연구가 축적 되었고 소설이나 영화로도 많이 다루어졌 습니다. 상대적으로 '벨 에포크'와 '전간 기' 그리고 68혁명에 대한 관심은 적다고 든 존재의 상의상존(相依相存)성이 밝혀 할 수 있습니다.

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전과 후의 대 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말의 석탄과 철강으로 상징되는 1차 산업 혁명에 이어 19세기는 석유와 화학공업으 로 상징되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 다. 식민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재화 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19세기는 '벨 에포크'라는 말처럼 풍요의 시대였고 낙 관주의가 널리 퍼진 시대였습니다. 비록 여전한 차별과 노동착취, 그리고 식민지 수탈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적어 도 여성차별과 아동노동에 대한 차별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의해 인류 문명은 영원히 진보하리라는 낙관주 의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자 불안 과 혼돈이 엄습하는 '전간기'가 도래하였 습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파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의미를 부 진정한 현대사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 여하는 세계관까지 무너뜨립니다. '벨 에 포크'가 낙관의 시대였다면 '전간기'는 불 안의 시대였습니다. 끔직한 대량 살육의 전쟁을 겪은 이후 서구사회는 역설적으로

무절제한 쾌락추구의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The Roaring Twenties)"로 맞이 합니다. 전후 재건의 호황을 타고 풍요로 운 시대가 열리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끝을 맺고 파시즘과 나치즘의 대두로 또 다른 전쟁의 공포에 짓눌리는 1930년대 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은 독립된 개인이라 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립 된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 간관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논리를 뒷 받침하였지만 대공황을 거치면서 아이러 니하게도 전체주의(全體主義)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합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과학의 발전으로 모 지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러나 전쟁은 어떤 커다란 변화의 계기 의 상보성(相補性)의 개념이나 생물학의 진화(進化)와 관련이 있는 공진화(共進化) 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성의 종교처럼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종교라 는 틀을 벗어나 과학이라는 원리에 기반 하여, 상대적으로 종교보다 보편성을 가 지고 있지요. 또한 기존의 종교처럼 폭력 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서서히 확산되는 특징 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불완전한 뒤처 리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이 엄청 난 전쟁에 책임을 져야할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존재하였습 니다. 그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교훈 을 배우기는커녕 여전한 제국주의적 자세 로 베트남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 한 저항운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는 데 이것이 68혁명입니다. 68혁명 이후를 다. 그리고 이 시대의 수류의 사상적 맥락 이 불교가 말하는 원리와 닮아있다는 것 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 > 칼럼리스트 김태원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2.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組織)과 체계(體系)를 갖춘다.

하나는 곧 전체(全體)요 전체는 곧 하나이므로 만법귀일(萬法歸一) 일 생만법(一生萬法)의 원리(原理)에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 하며 화 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사(事)와 이(理) 이사무애(理事無礙), 사사무애 (事事無礙)의 사법계(四法界)가 그것이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중관파(中觀派)와 유식파(唯識派)의 이파(二派)로 서 철학체계(哲學體系)를 수립(樹立)하고 「나란타대학」을 중심으로 번영 하였으나 양과(兩派) 모두 밀교에 귀착(歸着)하였다. 즉 일즉일체(一即一 切)의 완전한 조화(調和)의 세계의 이론적(理論的) 실천적(實踐的) 실현 (實現)이다. 가장 비근(卑近)한 본능적(本能的) 무반성(無反省)의 동물적 생활(動物的生活)과 일신(一身)의 이익(利益)만을 도모하는 공리적생활 (功利的生活)에서부터 윤리도덕(倫理道德)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식(人 間意識)과 자연현상과의 발전관계를 더듬으며 소승(小乘)에서 대승으 로 고양(高揚)하면서 최후에 절대조화(絶對調和)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 다. 따라서 밀교가운데에는 가장 저급(低級)한 욕망(慾望)과 가장 숭고 (崇高)한 이상(理想)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잡연(雜然)하게 들어 있는 것 이 아니고 각각 저마다의 가진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조화(一大調和) 를 구성(構成)하여 일대교향곡(一大交響曲)을 연주(演奏)하는 것이다. 잡 음이나 부조화음(不調和音)에도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요소(要素)에 불 과(不過)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활로부터 가장 발달한 차원(次元)이 높은 사상과 체험(體驗)에 이르기까지 그 도중의 모든 단계(段階)를 극 복(克服)하고 절대정신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것이 밀교다. 밀교는 인 도불교에서도 중관파(中觀派) 및 유식파(唯識派)의 당연한 귀결(歸結)이 었다. 즉 소승(小乘), 대승(大乘)의 모든 교의(敎義)와 실천을 밟은 뒤에 비로소 밀교가 성립되는 것이다. 비유하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듯 소승, 대승의 모든 교의(敎義)를 배우고 또한 실천한 자만이 비로소 밀교에 들어가게 허용(許容)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밀교의 정 통(正統)을 전해 받은 우리 진언밀교(眞言密敎)에서도 티벳의 라마교에 서도 마찬가지다. 라마교에서도 구사(俱舍), 중관(中觀), 유식(唯識) 등 의 일정한 과정(過程)을 다녀가(多年間) 학습(學習)한 후에 비로소 밀교 를 배우는 것이 허용(許容)된다. 이 때문에 밀교를 최상승(最上承)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상승(最上承), 금강승(金剛乘)의 밀교

은 변화를 겪었다. 계승과 발전, 혁신과 새 로운 모색이 이어졌다. 부처님의 뜻을 정리 하고 이해하는 데 몰두했던 부파불교는 교 학의 발전을 이뤘지만 점차 대중과 멀어졌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승불교 가 탄생했다. 사변화되고 복잡해진 사상의 요체를 간추리고 본래의 불교정신을 탐구 해 보살사상으로 도약했다.

불교사상을 깊이 파고들었던 구사론 등 아비담마 시대와 유식학 등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업에서 찾기도 하고 아뢰야식으로, 혹은 진여자성으로 설명했다. 미묘한 마음 작용의 원리를 밝혔지만 변하지 않는 그 무 언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 그리고

서로 비추고 받아들이고 융합하니 그들 사 의 말씀이 한층 생생하게 다가왔다. 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고 장애도 없다. 인 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 세계가 곧 법신불 이다. 사사무애법계의 경지는 원효 스님의 '원융무애'한 삶으로 대표된다.

사무애법계와 사사무애법계의 차이를 알 지 못하겠어서 계속 찾아보니 법륜 스님은 다. 몸소 체험하고 증득해야 할 터.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다.

중관학파에 이르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 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호수에 사는 세계 화두로 삼아 일로매진하는 것이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불교는 크고 작 계이다.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이 서로 두 오케스트라의 요소라고 한 원정대성사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만 드라망이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 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고 한다. 하나 체는 하나로 구현된다. 낱낱이 절대적인 가 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하나 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도 한 다. 너무나 익숙한 수사이고 멋들어진 표현 이라 반박할 여지가 없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다. 그냥 그런 것이고 원래 그 일반적인 설명은 이러하지만 여전히 이 런 것인데 환한 대낮에 눈을 감고 있는 격 이라고 하지만 그 눈이 쉽게 떠지지가 않는 많은 수행자들이 만법귀일 일귀하처, 우주 사법계는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세계이고 이법계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를

소승에서 대승으로 고양하며 절대조화에 도달함이 밀교 원정 대성사, "잡음과 부조화도 모두 오케스트라의 요소"

성은 없다는 공사상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발전의 귀결인 최상승의 밀교사상 을 이해하기란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종조법설집』 한 구절 한 구절이 쉽게 읽힐 수 없는 이유다.

먼저 화엄경의 사법계를 짚어보자. 제각 각 차별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현상계를 사 법계라 하고, 이러한 대립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이 사라진 평등한 진리의 세계를 이법 아니라 경계도 없고 걸림도 없다는 것이 이 치, 육체와 정신이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인 것이다.

이며 이사무애법계는 바다에는 가고 싶고 다에 나가는 세계라고 한다. 그리고 사사무 애법계는 바다에 있는 진주조개를 줍기 위 해 바다에 가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세계 로서 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고 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살고 싶은데 물드는 존재, 이법계는 깨끗하 계라 한다. 그리고 사법계와 이법계가 둘이 게 살려고 더러운 곳에 가까이 안 가는 존 재, 이사무애법계는 가까이 가도 물들지 않 를 살리는 존재란다. 화신, 화현이라는 말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열반이며 중생이 이 자연스럽게 이해됐다. 소승에서 대승으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로 고양하면서 최후에 절대조화에 도달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사무애법 는 것이 밀교이고, 잡음이나 부조화음도 모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다. '기쁘게도, 얼 물에는 안 빠지고 싶어서 큰 배를 갖고 바 마나 오랜 세월, 자연이 어떻게 살아가고 창조해왔는지 연구하고 탐구하느라 몰두 하느냐? 영원한 통일성. 각각의 사물이 자 신의 법칙에 따라 천 가지 모습으로, 작은 것 속 큰 것으로, 큰 것 속 작은 것으로 발 물에 빠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물에 빠졌지 견되누나. 변모하고 유지되며, 가까이 동시 에 멀리, 멀리 동시에 가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도 비교했다. 사법계는 깨끗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찬미 하고자 거기 있는 것이라네!'

세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한 걸음 다 가가고 삶의 진실과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 사무애법계이다. 현상과 본질, 사물과 이 는 존재, 사사무애법계는 내가 물들고 상대 가는 것, 분명 설레고 기쁜 일이다. 부처님 의 진리가 가슴에 차고 넘쳐 나날이 찬탄의

>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 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 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훌륭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단점과 결점이 있지만 '내게 이런 잘못이 있다'고 살펴 알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인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 는 곧 사회가 건강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했 다는 뜻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자기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자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논쟁에는 '꼭 있어야 할 한계와 책임'이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극한으로 내달리며마치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익 대립이나 극렬한 진보, 보수의 다툼을 재현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살펴 보고, 자기 나름의 관점과 철학에 따라 옳 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을 내리고 밖으로 주 장을 펴는 성숙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저 편을 꺾어야지, 무너 뜨려야지, 아예 죽여 버려야 돼!"하는 식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함까지 보입니다.

어느 날 사리풋타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 해서 '인간이 가진 더러운 속성'과 '그에 따 르는 수행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구들을 가 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네 종류가 있다. 첫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둘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치려는 사람, 셋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앞으로도 더러움이 끼지 않도록 단속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 중에서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더러움이 끼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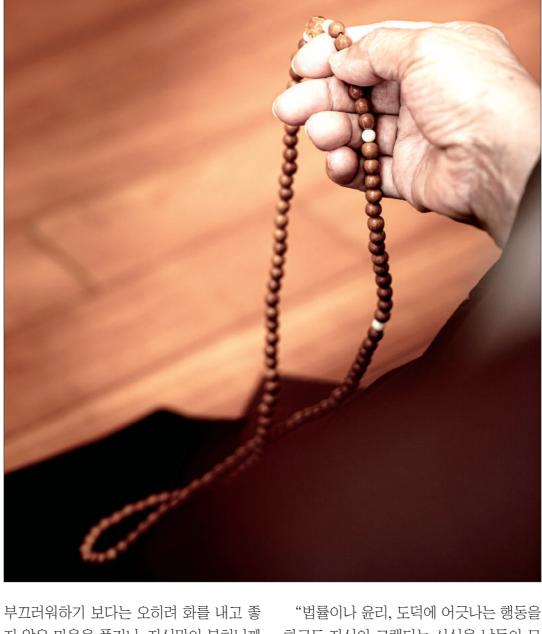
이때 어떤 비구가 일어나서 사리풋타 존 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여쭈었습니다.

"존자여, 왜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있는데도 수승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없는데도 하천하다고 하십니까?"

"더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또더러움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움이 끼어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부지런히 닦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더러움이생기지 않도록 하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수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존자여,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고 합니까?"

"욕심에서 생기는 나쁜 행동을 더러움이라 한다. 예를 들어 계율을 범하고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기 바라거나,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거나, 자신만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항상 이와 같은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우리들이 사리풋타존자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더러움, 단점이나 결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을 둘러싸고 '전쟁과 같은 살벌함'이 벌어질까요? 위의 내용을 요즈음 말로 바꾸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남들이 모 르기를 바라거나, 혹 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 를 내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공손 하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며 불 쾌해하거나,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 세상을 원망하며 범죄를 저 지르는 것을 단점과 결점이라고 합니다. 이 런 단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혹 단 점과 결점이 있지만 '내게 이런 잘못이 있 다' 고 살펴 알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몰라 무방비상태로 있거나,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만 옳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 면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사리풋타 존자가 언급한 단점과 결점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 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 펴볼 마음조차 없이 남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훌륭하다'는 수 식어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경향이 어느 한 분야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 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널 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통 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사랑이 담긴 비판을 건네주는 자비심이 없이, 상대 를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투쟁 의욕과 증오 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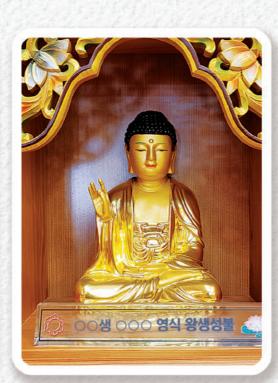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악을 범했다 해도 거듭 되풀 이해서는 안 되고, 악행에서 희열을 구해서 는 안 되네. 악이 쌓이면 괴로울 뿐이니. 결 과가 나한테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며 악 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리.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물독을 가득 채우나니,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악을 하나하 나 쌓아서 자신을 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네. 『법구경』

'내게는 혹 잘못이 없을까?' 자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할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항상 나빠!'라며 '남 탓하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살펴알고, 자기 바깥 세상에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는 평화의 화신이 되어야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심청정국토청정'이고, '일즉일체다즉일'입니다.

총기 35년 10월 (이달의 설법문안)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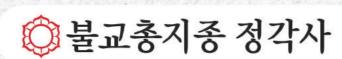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멸하지 않고 진리는 영원하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2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경주에서 시작했던 포교의 발길이 밀양과 부산을 거쳐 이윽고 서울 밀각심인당을 열 어 확장일로에 들어섰다. 무엇보다 가장 필 요했던 것이 교리와 교법 체계를 바르게 세 우는 일이었던 터라 대성사의 역할이 절실 했다. 대성사는 밀양심인당에 동참해 주변 에 밀교법을 전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바 는 같을 것이며, 그를 위해 기울여야 할 노 력 또한 동일할 것이다. 대성사 말씀 중 어 떤 단체와 그에 얽힌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 를 일러주는 대목이 있으니 마침 당시의 정 황과 다르지 않다.

"국가와 사회 또는 한 교단이 활발히 일 어나 번창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 물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이다.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멸하지 않고, 현실은 바뀌어 변해 가나 진리는 영원 하며, 재물은 시간이 흘러 없어지는 것이지 만 명예와 인격과 덕망은 영원불멸한 법이 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개인의 이 익보다 공익을 위하고 자기 교화에만 집착 해선 안 될 일이다.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 해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인 위치에서 사명 감을 가져야 한다."

막 발길이 바빠진 초창기의 진각종에 대 성사가 필요한 때가 왔으니, 이것은 현대 한



진각종 재시 대성사 육필 역경본

되고 이윽고 지평선까지 온 광야를 불사르

는 법이다. 진각종에 입교하면서 대성사는

한국 밀교의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었다. 불

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마음의 심지에서 세

상을 위한 횃불과 대지를 밝히는 태양빛으

로 번져 나갔다. 그러던 차에 아들의 생환을

맞았으니 어긋났던 일들이 제자리를 찾은

우리 밀교의 역사를 살펴본바 신라의 혜

일과 불가사의가 법을 받아왔으며 혜통국

사가 총지종(總持宗)을 세워 그 어느 곳보

다 뿌리가 깊었다. 명랑법사의 신인종(神印

宗) 또한 밀교 종단으로 위세를 날렸다. 법

을 구하러 인도 땅까지 다녀와 왕오천축국

전을 남긴 혜초는 중국 밀교의 시조인 금강

지로부터 법통을 이은 바 있고, 밀교 의식으

로 당나라의 왕실을 감동시킨 바 있었다. 그

렇게 밀교와 이 땅은 깊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오래도록 그 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조선을 거치면서 밀교의 황무지가 된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대성사는 정통밀교를 세우기 위해 잊혀 진 인연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경 전을 엄밀히 살펴보아 소승, 대승, 밀교 경 전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아함부 경전에서 도 비밀주(秘密呪)가 있음을 찾아냈다. 섞 여 있는 모래알 속에서 보석을 고르듯 밀교 적인 것과 밀교의 핵심을 나누어 살폈다. 그 둘을 나누어 보는 대성사의 설명은 이렇다.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은 진언, 즉 다라니로 수행의 세계를 설명했다. 보살 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라니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본연부에 속한 방광대 장엄경에도 밀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그 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밀교적인 것과 밀교 는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밀교적이 라고 해서 반드시 밀교가 아닌 점을 주의해 야 한다. 신통력이나 주문 등은 밀교적이기 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밀교의 수행은 신통력을 얻기 위함도 아 니고, 주문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절이 바뀌고 함도 아닌 것이다. 신통력이나 원하는 바 국 밀교의 숙명이었다. 어둠은 작은 불씨가 시대가 변해 드디어 대성사가 다시 그 인연 의 성취는 밀교 수행의 결과는 될 수 있을

다. 이를 잘 살펴 정통 밀교가 무엇인지 알 아야 한다."

대성사에게는 누구로부터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 다. 자신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천 년 세 월을 넘어 다시 꽃필 정통밀교의 맥이 흐트 러질까봐 마음을 다져 먹어야 했다. 그렇게 살피고 살핀 끝에 정통밀교를 세우는 데 필 요한 내용을 찾아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 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밀교 이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롭게 파악한다. 특수한 것 가운데서 일 반성을 인식하고 서로 비슷한 무리로써 드러 나 이루어진다. 인간은 따로따로인 것 같아 도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모든 인간과 관 련을 맺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밀교에 서 인간과 세상이 촘촘히 얽히고 짜인 그물 과 같아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할 것인가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집은 쉽게 무너질 것이며 길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 들을 이끌 것이다. 전쟁 중이었지만 대성사 는 경전을 살펴보고 비밀주를 찾아 외우며 수행을 통해 지옥의 화염 속에서 연꽃을 피 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기 위해 이제 막 틀을 갖추어가는 새로운 밀교 종단 도 조직과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믿 었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삽화 중에서

당시 회당 대종사가 주축이 된 심인불교 (心印佛教)는 밀교를 표방했지만 막 시작하 던 단계라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인재 가 부족하고 새 교도들이 밀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었다. 교 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참회를 내세웠고, 다시 심인을 밝혀야 한다고 기치 를 세웠다.

참회는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심 인 또한 다라니로써 마음의 근본과 일치되 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일반 교도들의 이해는 깊지 못했다. 그러니 교법의 정비와 집을 짓고 길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체제를 세우는 일이 시급할 수밖에



교화와 행정시스템 공고화, 스승과 교도 일심 정진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새롭게 단장한 조직과 제도①

제2대 종령 취임

하고 원정 대성사의 가지신력(加持神力)과 호국불교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잇기 위 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원정 대성사의 유훈 에 따라 1980년 9월 16일 제2대 종령으로 선출된 록정 대종사는 10월 27일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종무행정 의 진용을 정비했다. 다음날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지사 헌공불사 를 거행한 후 제2대 종령 추대식을 거행했 다. 이 자리에서 원정 대성사 사리친견 예경 불사를 거행하고 전국의 사원에서 대성사 의 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친견하며 밀엄정 토 건설과 정통밀교 발전의 대원을 계승할 것을 발원했다.

밀교 사상과 수행법, 교화 조직과 행정 체 계를 완전무결하게 정립하고, 투명하고 합 리적으로 종단을 이끌었던 원정 대성사의 원력과 철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위대한 원정 대성사가 중심이 되어 나날이 성장을 거듭해온 종단을 흔들림 없 이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종단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 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먼저 종단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 하여 원로 스승의 총의를 모으고자 종령자 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성사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했다. 종책 사업의 방향과 주요 사 업의 중지를 모아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법장 원 등 주요 기관의 인사 채용 시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았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종단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는 기존의 승단총회를 활용하여 승직자의 전원 합의

로 종단을 이끌었다. 신정회 임원과의 간담 스승과 교도들은 슬픔과 애통함을 뒤로 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크고 작은 현안의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 련했다. 이러한 정신은 제3대 종령 환당 대 종사로 그대로 계승되어 종단과 사원, 스승 과 교도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의 전 통으로 자리 잡았다.

> 1981년 9월 8일 전국의 사원에서 종조 멸 도절 1주기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원정 대 성사의 워대한 뜻과 거룩한 발자취를 되새 기고 정통밀교종단으로서 총지종의 유구한 발전을 기원했다. 그 다짐은 10월 20일 제2 회 결연관정수계식으로 이어졌다.

> 제1회 결연 관정수계식 이후 종단에 입문 한 수많은 교도들과, 종단 발전과 교화를 위 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총 562명의 교도 들은 록정 종령을 전계아사리로 모시고 교 수아사리, 걸계아사리, 갈마아사리, 증계아 사리를 증명법사로 하여 삼매야계 수계증 을 받았다. 종단의 주인으로서 수행과 전법 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본존과 스승 앞에서 맹세했다.

> 위대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종단이 흔들림 없이 성장을 지속 하고, 대성사를 모시고 함께 수행하던 때와 다름없이 발전을 거듭한 데에는 교화와 행 정 시스템을 탄탄히 하고 스승과 교도가 일 심으로 화합하여 수행 정진한 노력이 밑바 탕이 되었다.

사감원의 신설

원정 대성사가 구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와 종단 확대를 뒷 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불교의 육화합(六和合) 정신에 입각하여 청정한 계 율을 기반으로 한 수행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0년대 스승과 교도들의 불공정진 모습

1982년 10월 19일 원의회에서 사감원법 을 제정함으로써 종의회, 원의회, 사감원의 명실상부한 3부 조직체계를 완성했다. 사감 원장 수성 정사를 비롯한 총 5인의 사감위 원을 구성하여 통리원, 재단법인, 사원의 행 정감사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계율과 화합의 승직 풍토를 공고히 했다. 5명의 사 감위원 중, 사감원장은 종령이 임명하고 2 명의 사감위원은 종령이 지명하되 종의회 인준을 거치고 나머지 2명의 사감위원은 종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 의 균형을 맞췄다. 이후 2명의 사감위원에 대한 지명권이 종령에서 통리원장으로 변 경되었다.

사감원은 매년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종단과 사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함으로써 스승과 교도들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참여를 이끌었다. 매해 통리원 과 전국의 사원을 대상으로 집중 사무지도 감사를 진행하여 각종 공문서의 관리, 수입 지출품의의 절차와 적정성을 갖추도록 지 도했다. 통리원, 재단, 법륜회 등 각종 단체 의 인사행정, 경리회계, 공사 및 계약 관련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 여 종단 운영의 적법성. 합리성, 공정성을 제고 했다.

사감원은 스승과 교 도에 대한 포상, 징계, 사면 복권에 관한 사항 을 비롯하여 종무기관 에 대한 사무와 회계 감 사, 스승과 교도 및 종 무원의 자격 심의, 기타 청원 내용을 조사하는 등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이나 운 영상의 실수나 미숙함

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목 적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아 미래를 도모 한다는 원칙으로 감사와 지도에 임했다.

규율과 원칙은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화합과 발전의 기 초이므로 모든 사안은 철저히 법령에 의거 했다. 문제와 시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종법 과 종령을 준거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대처



1981년 10월 29일 부산 자석사 헌공불사

특히 승직자는 수행자이자 법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계행에 더욱 철두철미해야 하 기에 사소한 문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종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스승이 갖 춰야 할 품성과 청정한 계율을 엄정하게 관 리 감독하여 수행과 교화의 모범이 되도록 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9시 30분 ~ 18시 30분 야간진료 20시 30분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불가사의 아사리와 조선조 총지사 풍운

밀교의 의궤나 도량의 설행을 살펴 보면 차제 가운데 조사의 명호를 염송 하는 예참이 있어 준엄한 사자상승의 법맥을 공유하고 부촉과 다짐을 새로 이 하는 의식을 볼 수 있다. 티벳과 일 본의 경우 공히 비로자나불과 금강살 타, 석가모니불, 용수보살을 포함하고 다음 종파의 종조로부터 현재까지 전 승된 조사들의 명호를 빠짐없이 염송 한다. 한국불교의 경우 신라의 불가사 의를 위시해 선무외와 불공으로부터 양부 수법을 전승받은 아사리가 적지 않다. 고려시대 밀교도량을 설행했던 총지종과 신인종의 의궤 시작 부분에 는 당연 한국 밀교의 법맥을 전한 아 사리들의 명호가 존재했을 것이다.

한때 조선시대 밀교를 연구하면서 조선조 제작된 향완이나 『진언집』 의 실담이 꽤 정확하게 쓰인 것, 용성 선사가 전한 육자진언을 비롯해 조선 조 밀교 법본이 적지 않게 남겨진 이 유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었다. 조선조 밀교를 지켰던 주체를 선사에 국한하 기에는 무리가 많았지만 한국 밀교의 마지막 흔적인 전남 무안의 총지사 기 록을 보고 의문이 풀렸다.

현재 무안군 몽탄면 대치3리에는 총 지마을이 있는데 그 유래는 725년 건 립된 백운산 기슭에 세운 총지사에 기 인한다. 총지사는 승달산 법천사와 함 께 당에서 온 정명 스님에 의해 건립 되었고, 조선 현종 7년(1666) 중창되 어 조선말까지 존재했다. 『동사열 전』에 의성(義誠) 스님은 1758년(영 조 34)생으로 성은 김 씨였으며 호는 설암(雪巖) 또는 영주(靈珠)라 하였다. 16세 때 무안 총지사에서 해암(海庵) 을 은사로 득도하여 윤우(倫佑)로부터 선을 전수 받고, 총지사 총섭과 담양 용흥사(龍興寺) 총섭을 역임하였다. 총지사의 법맥을 살펴보면 유일(有一) 로부터 도연(禱演)을 거쳐 윤우에게



총지사지 석장승 [무안군 홈페이지]

이어졌으며, 의성은 석호(石虎)·녹일 (祿一) 양 제자가 있었다. 의성은 선운 사(禪雲寺) 한산전(寒山殿)에서 1839 년(헌종 5년)에 입적하였으니, 나이 81세, 법랍 67세였다.

의성의 활동은 조선불교의 선종은 명실상부하게 선밀겸수(禪密兼修)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재 한국불 교의 선찰에서 천수다라니 염송과 참 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 으나, 후손들이 어리석어 선학들의 현 밀겸수의 자취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조 융합의 이정표였고 특히 고려불교의 선불교 이판의 수행을 간경, 참선, 염 서 밀교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임씨 문중에서 자리를 빼앗아 묘를 썼고 이에 분노한 젊은 승려들이 무덤 에 못을 치자 세도가는 총지사를 불태 웠고 아사리들은 법당과 함께 소신하 여 한국불교 밀교의 마지막 터전이 사 라지게 된 것이다. 현재 총지사 터 주 변은 무안군에 의해 문화단지로서 복 원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절터는 개인 소유로 넘어가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 으며, 현재는 총지사 인근의 두 석장 승 보존대책으로 절하되어 총지사의 흔적이 절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안군 시도하고 있는 총지사 터 복 원과 문화단지 조성의 한계는 밀교라

는 최고의 문화적 소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지사의 복원과 관련해 밀 교종단과 각계의 주도로 밀교지식을 무안군의 지자체와 공유하면, 밀교박 물관이나 연구소가 무안에 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재가 부 족할 경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밀교 단체와 유물을 공유하여 다국적 의 도량을 열어 밀교의 세계화를 지향 하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다.

육자진언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동 아시아를 관통하는 불교문화 소통과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의 상승은 인도 불이라 하였으나, 필자는 여기에 더해 와 동아시아 밀교가 한때 공유했던 세 계화와 소통의 흔적이다. 과거 총지종 총지사는 1810년 당시 토호였던 나 의 존재는 무안 총지사와 무관하지 않 다. 위로는 신라시대 불가사의 아사리 에 닿아있으며, 조선시대 유행한 선밀 격수의 풍조를 이어 현대 한국불교 총 지종에 계승된 역사의 인과가 존재한 다. 사자상승의 법맥을 정리하고 역사 와 흔적을 찾아내 후손에게 새로이 창 출된 지식과 가치를 전하는 것은 종조 께서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의 겸업을 주창한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무안 총지사는 예전 언급한 적이 있으나 『공양차제법소』를 살펴보 다가 눌변을 더하였다.)

>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남혜 정사의



홀로 사는 행복

군시절 휴가를 나와 시내를 걸어가다 우연 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제목의 영 화 간판이 걸려 있는 극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 데 제목이 참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 다. 고등학교때 불교반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 에는 불교경전 등 불교 관련 서적을 읽어보지 못해 아는 것이라곤 반야심경 밖에 모르던 시 절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제대 후 대학 2학년 시절 집에 '수타니파타' 라는 책이 있어 대학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잠시 보게 되었다. 초반부 '무소의 뿔'경에 '무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 랐다. 그 영화 제목이 이런 의미였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다. 저 광 야를 달리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이 세상 에 태어나서 홀로 살다 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현명 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저 광야를 달리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 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했 다. 해운대, 광안리, 성지곡수원지 등 부산 시 내 곳곳을 홀로 돌아다녔다. 그 때는 혼자 돌아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 람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말을 걸면 어쩌나 등 쓸데없는 고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혼자 있으면 좋 았다.

나이가 들어 총지종의 정사가 되어 단음사 주교로 있지만 지금도 혼자 있으면 좋다. 하지 만 어릴 때의 좋음과 지금의 좋음의 의미는 다 르다. 어릴 때는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는 것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으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 좋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 다. 혼자서 밥을 먹으니 밥 먹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 혼자서 불공하니 불공 하는 데만 집중하

면 된다. 그렇게 내게 집중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 게 된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행복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확 립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하다 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행복이 있고,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행복이 있다. 그 렇게 행복을 이해하려면 홀로 있는 행복을 이 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행 복하고 혼자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지처가 없으면 불행 하다고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 재들 또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셨다.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리고 홀로 있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함께 있는 행복도 안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준	제	관	유	법		杏	지	신	문
법		자		명	리	학			방
정	유	재	란			생	로	병	사
신		보		신	정	회			우
	포	살		미				꽃	
말			망	양	지	탄		상	
복	덩	이		요		소	구	여	의
	굴		근		0]		구		기
모	나	리	자		광	복	절		소
	무		감	로	수		절		침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교도수행체험담 ⑥

큰딸과 법문

"이거 점쟁이 안 갖다 줄 거예요. 부처님 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 아서 다 해결해주세요."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몸이 아 파서도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큰딸 때문입니다. 큰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많았고, 어미로서 그 모든 것 을 해주기가 힘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딸이 제게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닌 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불공 을 하면서 둘 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딸의 불공을 하면서 경험한 저의 법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큰딸은 내로라하 는 대기업에 곧장 취업을 하여 모두가 부 러워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말끔 히 차려입고 출근을 하는 딸을 볼 때마다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잘 다 닐 줄만 알았던 딸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초기에는 행복해하 기에 '당분간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 지만 재취업이 안 되는 채로 시간만 흐르 자 조급해졌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지 히스테리를 부리다가도 어느 때는 세상 태평하게 빈둥거리고 있으니 내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 혼자 불공을 하는 걸 로는 되지 않을 성싶었습니다.

"나랑 절에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귓등으로 듣고 별 대답도 잘 안 해 주었지만 여러 번 마음을 다해서 이야 기한 끝에 한번 가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 다. 다행히 스스로 자성일도 잘 지키고 합 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 는 것은 백번 천 번 고마운 일이었지만 여 전히 새 직장은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속이 탔습니다. 고민 끝에 전수님에게 도 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집중적 으로 불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 공을 마진 후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인 듯 했으나 눈은 아니었고 종이학 같은 것들이었습니



다. 땅 위로는 하얀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하늘에서는 하얀 것들이 하염없이 내 려오는 이상하고도 예쁜 광경이었습니다. 신기한 꿈이라고 날이 밝자마자 스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승님은 가만히 기다려 보자고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가 되었나, 딸에게서 면접을 보러 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유명하고 큰 회사에서 1차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곱씹어보면 그 법문 같은 꿈을 꾸었을 때가 딸이 서류전형을 준비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1차 합격 이라는 말에 무척 떨렸지만 태연한 척 '잘 하고 오라'는 말을 건네고 열심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면접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자 로 5명밖에 안 뽑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 들이 왔어.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그 런데 신기한 일이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내 구두 앞코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살포 시 앉았다가 날아간 거 있지."

딸아이가 겪은 나비 이야기를 들으니 가 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꿈과 법문이 매우 긍정적인 것만 같 았지만 복이 달아날까, 말을 꺼낼 수는 없 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던 불공 중에 알록달록한 꽃이 만발인 산에 오르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다섯 마리의 하얀 양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최종합격이 되 었습니다.

정각사 김점남 보살

딸과 문제가 생기고 딸의 인생에 좋지 않 은 기미가 보일 때마다 딸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공을 할수록 엉켰던 실타래가 술 술 풀리듯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 니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도 되었겠다, 이제 딸애가 가정을 꾸 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되 지 않았습니다. 딸의 회사 상사가 소개해 준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 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 음도 지칠 즈음 용하다는 점집에 갔습니 다. 무속인은 다짜고짜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굿의 비용은 무려 167만원 이었 습니다. 저는 그길로 은행에 가서 167만원 을 찾아 절에 갔습니다.

'이거 점쟁이 안 갖다 줄 거예요. 부처님 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 아서 다 해결해주세요.'

마침 49일 불공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딸 불공을 하지 않고 부모님 이름을 넣은 조상불공과 제 불공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남은 불공을 2주 남기고 꿈을 꾸었습니다. 큰 몸집의 뱀 하나가 아가리 를 벌리고 제게 달려들기에 무서워하고 있 는데 큰 말 한 마리가 풀숲에서 뛰어나오 더니 앞발로 뱀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도 뱀이 다시 따라오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 꾸만 뒤를 돌아보는데 폭포수 계곡의 물줄 기에 뱀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 후 불공이 끝나고 설이 다가오는데, 상견례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법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건 지 알쏭달쏭하기도 했지만, 직접 겪어보 니 과연 진기하면서도 소중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안 될 일 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매 번 깨달았고, 그 깨달음 앞에는 늘 법문이 있었습니다. 거미줄 같은 인생살이에 지친 보살님들이 있다면 마음을 기울여 불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근화완(勤謹和緩)의 생활

근근화완(勤謹和緩)이란 말은 <소학 (小學)>의 선행장(善行章) 편에 나오는 말이다.

장관(張觀)이 말하기를

"나는 관직을 맡고부터 항상 네 글자를 마음에 지니고 살고 있으니, 이는 바로 부 지런함(勤), 신중함(謹), 온화함(和), 느긋 함(緩)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말하는 중간에 한 후생 이 맞받아서 여쭙기를

"부지런함, 신중함, 온화함에 대한 말씀 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느긋 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알아듣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가다듬어 말하기를

"어찌 내가 자네들로 하여금 일을 느긋 하게 하여 제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 록 가르치려 함이겠는가? 세상의 일이란 것이 무슨 일이든 황망하게 처리하다가 오히려 그릇되게 됨을 말하고자 한 것이 다."라고 하였다.

로 장관이라는 사람이 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언제나 '근근화완'의 네 가지 원칙을 항상 지키며 공무에 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말은 비단 관리들이 지켜 야할 행동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 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 켜야 할 생활지표이기도 하다.

첫째, 근(勤)은 부지런하게 살자는 것이 다.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란 말이 있듯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늘 근 면하기만 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 다는 것이다. 부연하여 말하면 세상에 게 으른 사람이 인생의 대업을 이룬 예는 세 상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지런했고, 근근자자(勤勤孜孜: 매우부 쓰지 않는 도구는 녹이 슬기 마련이다. 마 정신에서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찬가지로 인간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 능

력조차도 부지런히 쓰고 닦아야 빛이 난 다. 이 근이야말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최고의 계명인 것이다.

둘째, 근(謹)은 근신하며 살자는 것이 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몸가짐을 바르 게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며 일 처리도 매 사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지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활 하는 것은 근의 생활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중요하며, 창의적인 일 처리가 바 람직한 삶이고 인생살이라 할 수 있다. 생 활 속에서 교만하거나 건방지고 또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이 말에 장관이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저지르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현자들 은 근의 생활을 거울로 삼고 살아야 인격 자로서 존경을 받게 된다.

셋째, 화(和)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며 살자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인화만 큼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화야말 로 공동체 정신의 핵이 되기 때문이다. 인 화가 무너지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제대 여기서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것은 바 로 되는 일이 없게 되고, 인화가 공고해질 때만이 만사가 순조롭고 직장생활은 물 론 가정도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돌게 된 다. 우리는 화를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삼 고 서로 믿고 칭찬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넷째, 완(緩)은 너무 성급하지 않고 착 실하게 살자는 것이다. 모든 생활에서 사 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성급하게 일을 서 두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 르게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빨 리'나 '대충 대충' 등으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서 항상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일관 성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 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근본 리듬이 되 는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보람 있는 '지런하고 정성스러움)한 사람들이었다. 생활을 우리 모는 사람들이 '근근화완'의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보명심	6/21	10,000	덕화사	법상인	6/21	20,000		강숙자	6/26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6/27	80,000
관성사	김병석	7/3 10,000	극최시	법상인	7/20	20,000		진여	6/26	10,000		하재희	6/26	80,000	
고경시	보명심	7/20	10,000		김진화	7/12	10,000	사원명	하명순	6/26	1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6/30	10,000
	우인	7/20	10,000	동해사	송인근	7/18	10,000	무기명	김지은	7/10	20,000	 잠원햇살			
	해정	6/28	10,000		법선	7/20	10,000		강숙자	7/14	10,000	어린이집	김선희	6/26	80,000
	공덕성	7/20	20,000		강명순	6/30	10,000		박필남	7/19	10,000		김점남	6/28	20,000
	수증원	7/20	10,000		홍도열	7/7	10,000		나석원	6/24	50,000	정각사	탁상달	7/14	10,000
	밀공정	7/20	10,000	만보사	이종구	7/11	7,000	석관실버	박현정	6/25	20,000	제석사	노점호 이진승	7/20 6/30	10,000
	선도원	7/20	10,000		김정희	7/19	10,000	복지센터	김용기	6/26	20,000	게크시	유은혁	7/8	10,000
	법지원	7/20	10,000		김광혁	6/26	10,000		정윤영	6/27	10,000		백귀임	7/10	10,000
	일성혜	7/20	10,000	밀인사 김재영		6/26	10,000	수인사	법상	6/21	20,000	총지사	최영아	7/10	10,000
기로스승	사홍화	7/20	10,000						법상	7/20	20,000		신현태	7/17	10,000
	안주화	7/20	10,000		정정희	6/29	5,000		혜광	7/2	10,000		김정환	7/18	10,000
	진일심	7/20	10,000	법천사	반야심	6/30	10,000		이순영	7/2	2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6/27	80,000
	시각화	7/20	10,000		인선	6/21	10,000	IIIIII	박성호	6/21	10,000		강동화	6/28	10,000
	최상관	7/20	10,000		정계월	6/21	10,000	실보사	이순옥	6/21	10,000		무명씨	7/5	10,000
	연등원	7/20	10,000	법황사	박미경	6/26	10,000		정우석	6/23	10,000	화음사	무명씨	7/7	30,000
	자선화	7/20	10,000		인선	7/20	10,000		유승우	7/10	10,000		박옥자	7/11	10,000
	승효제	7/20	10,000		정계월	7/20	10,000	실지사	이도현	7/10	10,000		무명씨	7/19	10,000
	장정숙	7/10	10,000	승원 벽룡사 묘원화	승원	7/20	10,000		이서현	7/10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7/10	80,000
단음사	성성국 하현정	7/10	10,000		묘원화	7/20	10,000		이루나	7/10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긴급시	신말심	7/10	20,000	볏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7/3	8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6/23	80,000	기로스승	지공	7/1	1,000,000
	720	// 10	20,000	이번이답				<u> </u>					지회심	·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는가. 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 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 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 다. 이른바 무명(無明)은 행(行)의 연(緣)이 되고, 행은 식(識)의 연 이 되고, 식은 명색(名色)의 연 이 되고, 명색은 6처(處)의 연 이 되고, 6처는 촉(觸)의 연이 되 고, 촉은 수(受)의 연이 되고, 수 는 애(愛)의 연이 되고, 애는 취 거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또한 많 (取)의 연이 되고, 취는 유(有) 은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의 연이 되고, 유는 생(生)의 연 이 되고, 생(生)은 노사(老死)의 고 태양과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 연이 되어서, 걱정·한탄·괴로 지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자본 움·근심·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다." 『연기경(緣起經)』

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의 둑이 무너지고 반지하에 살던 가족들 이 죽고,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 기고 지하차도에서 달리던 차 안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했고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일어났고 기 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고 해 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홍수, 산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 등 자연재해가 늘어서 기후위

기를 가져왔고 기후위기는 생물

다양성의 파괴로 인한 생물대멸

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

진다."는 12연기를 보는 것 같습

최근 들어 여름마다 집중호우

니다. 으로 하나씩 원인을 제거해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

기후 위기의 연기법

"무엇을 연기의 처음이라고 하 니다. 화석연료 덕분에 우리는 산 에 나무를 베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풍부한 에너지 덕분에 물질의 대량생산이 가능 해지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 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개량 소비 뒤에는 언제나 대량 폐기라는 문 제가 발생하고 쓰레기를 매립하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 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비자인 우리 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 는 소비란 물건을 살 때 유행이나 과시욕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인지 잘 생 각해 보고 꼭 필요할 때에 구매하 에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 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이 적은 것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으로 지역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업에도 비료, 농약과 같은 화석연료가 들어가 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을 제철에

소비뿐만 아니라 버릴 때도 마 찬가지입니다. 불교수행의 핵심 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 고 다시 쓸 수 있는지, 고쳐 쓸 수 있는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아서 아껴 쓰고, 나 눠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부 12연기도 순관과 역관이 있듯 득이 버리게 될 경우에는 분리배 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바라밀을 실천

살의 6바라밀 중 첫 번째로써 나 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서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 으므로 '무아'라고 하셨고 '무아' 이므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소유'의 삶 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소유라 함 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버 리고 필요에 의해 소비하고 소유 에 집착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내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 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자본주 의 경제체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물질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공유경 제와 매우 밀접한 생활양식입니 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물질소 비를 줄일 수 있고 빈부격차로 오 는 사회적 갈등과 빈곤의 문제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 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은 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지 금의 기후위기가 산업화 이후 대 량생산 대량폐기의 결과로 빚어 진 일이기에 이제부터는 그 반대 로 살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 을 골든타임을 이렇게 흘려보내 서는 안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기 후위기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요구하고 기업이 탄소 감축과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승가공동체 에 살아있는 소욕지족의 가르침 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적극 적으로 실천하여 성장주의 경제 한다면 지금의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지화 스승 오칠재에 부치는 편지

어머님 영전에 올립니다

어머님!

꿈인 듯 생시인 듯, 어머님 떠나신지 어느새 오칠재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어머님 영정 앞에 앉으니 인생의 무상함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불편할까봐 코로나가 다 해지되어 마스크를 벗을 때까 지 기다리셨습니까?

미국에 있던 장손 지훈이가 귀국하도록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코로나를 두 번이나 이겨내시고 마치 맞춘 듯이 장남인 오빠가 면회를 가는 시간에 맞추어 목욕까지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홀연히 가셨습니까?

99세 천수를 하셨다지만 100수를 더 하신대도 자식 된 마음에 그 아쉬움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머님이 계시던 곳에 가면 어머님이 계실 것만 같습니다.

어머님! 영정사진을 한참을 올려다보면서 정녕 어머님은 먼 길을 가신건지요? 마지막 면회 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실 줄 알 았으면 그때라도 엄마라고 실컷 불러 볼걸, 후회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제는 다시 불러볼 수 없는 그 이름 엄마! 이제라도 어머님 영전에 마지막으로 불러 봅니다. 엄마! 엄마!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식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으로 오랫동안 불편한 몸에 묶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육신의 짐을 다 내려 놓으셨으니, 바람처럼 구름처럼 가시고 싶은 곳 어디든지 훨~훨 마음껏 다니시 옵소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섬기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자비를 받으시어, 이 생에 못 다한 원 다 이루옵고, 부디 왕생극락, 왕생극락, 왕생극락하옵기를 저희 자 손들이 어머님 영전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지심으로 지심으로 불공드리옵니다.

> 계묘년 7월 21일 오칠재일에 둘째 딸 정순 올림

불교서적 월간베스트(7/1~31)

-/			
	ᅰ고	٠.	너초피

4,5층

			세승 : 포시승인 문구시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운주사	뻰첸라마 롭상예쎄
2	법륜 스님의 행복	나무의마음	법륜
3	사찰의 비밀	담앤북스	자현
4	불교개설 (조계종 신도교재)	조계종출판사	조계종 포교원
5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민족사	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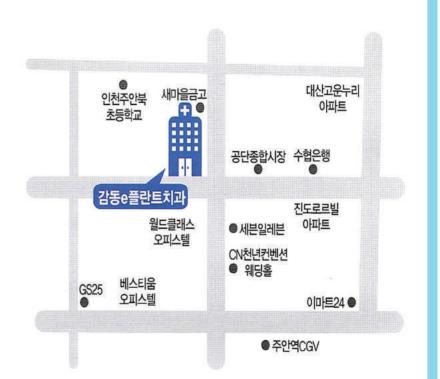
화음사 교도 광고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석관실버복지센터, 서울종암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 지재단(이사장:우인 정사)이 운영 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 (센터장: 나석원)는 지난달 14일 서 울종암경찰서(서장:정환수)와 '고 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석관실버복지센터를 비 롯해 노인복지 관련 유관기관 7곳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기관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 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통사고 예 방활동 참여 △교통안전 교육 △홍 보 자료 공유·협조 등 고령자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울종암경찰서 정환수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운천사 박건우, 문화예술연예대상 연예예술 편곡 부문 '대상' 수상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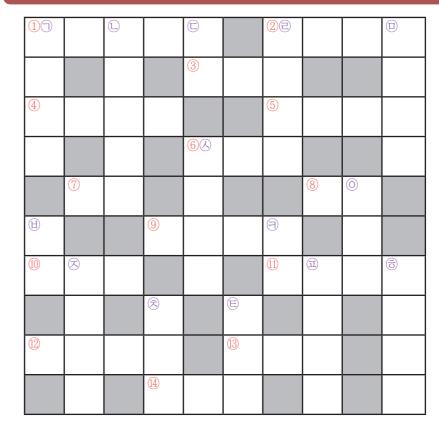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지휘자 박건우 씨가 제6회 대한민국 문화 예술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 편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익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와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시 상식이 지난달 12일 부산 농심호텔 대연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가 운데 박 씨는 편곡 부문 최고의 영 예를 안았다. 박 씨는 이날 각각 작 곡과 작사 부문에서 연예예술 대상 을 거머쥔 대중가요 '막걸리 한잔' 의 류건우, '안동역에서'의 김병걸 씨와 수상의 무대에 함께 올랐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2023 영· 호남 트로트 가요제'에서 박 지휘자 는 심사위원을 맡아 문화교류를 통 한 영호남의 화합과 문화예술인의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부림합창단은 조정에 단장과 단원 20명이 박 씨의 지도 아래 매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운천사에 합창연습 중이며, 불음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055-223-2021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소

- ① 총지종에서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 수행하는 법
 - "나무 삿다남 삼먁삼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 ② 1995년 창간된 불교총지종 종단 발행 신문
- ③ 사주로 한 사람의 운명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동양철학의 한 학문
- ④ 임진왜란의 화의가 깨지고 1597년 왜군이 조선을 재침공한 사건
- 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 ⑥ 총지종의 교도 조직 명칭
- ⑦ 불교에서 사부대중이 정해진 날에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는 의례
- ⑧ 흙탕물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교를 상징하는 꽃
- ⑨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mark>을 수 없다는</mark> 사자성어로 학문의 길<mark>이 여러 갈래</mark>
- 라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뜻. 00지탄
- ⑩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⑪ 사종수법 중 구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외우는 진언, 0000 사바하
- ⑫ '리자 부인'이라는 뜻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 ③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되어 나<mark>라와 주</mark>권을 다시 찾<mark>은 날</mark>
- ④ 불교에서 말하는 도리천에 있는 달콤하고 신령스런 약수

세로 열쇠

- ⊙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정신
- © 다른 말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mark>이끄는</mark> 관세음보살<mark>의 다른</mark> 말
- ©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승직자로부<mark>터 받는</mark> 불명
- ②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자치기구
- ②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네 가지 도구(붓, 먹, 종이, 벼루)
- 🕲 삼복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복날
- ④ 1871년 미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조선과 미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
- ⊚ 꽃으로 장식한 상여
- 🌣 머루 또는 등나무처럼 덩굴이 발달하는 나무
- 🕏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
- ③ 다이아몬드, 흑연, 목탄 등에 존재하는 화학원소(C)
- (E) 〈무정〉, 〈마의태자〉등을 집필한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문인
- ੰ 하나하나의 모든 구절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02)552-1080

정각사

화음사

동해사

52707

47756

◉ 기운이 없고 풀이 죽은 상태



옴마니반메훔, 찻잔 속의 연꽃이여!

정각사 다도반(반장: 김윤경)이 제2기 반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연꽃차 시연을 가졌다. 연꽃차는 여름차의 대명사로 동의보감에는 오래도록 마시면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좋게 하는 차로 기록돼 있다.

사진=부산 정각사 다도반 강사 김정애/동참 문의=051-552-7901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공식불공 자성일불공	매일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진호국가불공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월초불공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사원명 통리원 수련원 동해중학교 사회복지재단

총지사

06227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2-7901

(055)755-4697

(051)556-0281~2









여름 스포츠, 학교 밖 놀이와 강연 등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성료

불교총지종 청소년을 위한 2023년도 '한마음 여름캠 프'가 4년 만에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용인 에버랜 드 일대에서 개최됐다.

도 자녀 등 총 100여 명의 학생들과 지도 교사들이 참 여하고,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스승님들이 동참 한 가운데, 학교를 떠난 다양한 학습과 놀이 프로그램 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5일 오후 2시부터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집 공으로 입재식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혜광 정사 로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는 참석 청소년들에게 종단과 불공법에 대해 소개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청소년 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곳이다."며, "스승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재미있고 유 익한 시간을 보내며 끝까지 안전하게 지내다 돌아가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입재를 마친 후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해 여름 스포츠 활농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놀이공원 달랬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스승들의 했다.

강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묘원화 전수(서울 벽룡사)는 '명상'을 주제로, 지현 전수(부산 자석사)는 '미래 삶을 위한 선택'을 발표하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 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석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동해중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정각사 등 전국 사원 교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명상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 다고 평가했다.

> 정각사 교도 자녀로 참석한 최연우 학생(남일중학교 1학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지현 전수님 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면서 "스승님의 말씀대로 앞으

> 지도 교사로 참석한 동해중학교 김진화 교감은 "이번 한마음캠프는 불교총지종 스승님들의 인성교육 강연으 로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며, "참여한 100여 명의 학생들 모두가 강연과 체험 프 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진로방향을 찾아 갔으면 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조식 후 여행후기를 작성하고, 회향식을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 에버랜드에서의 하루를 보내며 학업으로 지친 신심을 는 불교총지종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일 불교교류협의회, BBS불교방송, 불교TV BTN이 후원 김상미 기자

100일 불공으로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수험생들을 위한 발 워 문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삶의 바른길을 광명으로 밝혀 주시는 부처님!

이제부터 수험생들이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겸손과 끊임없는 정진의 힘을 갖게 하소서 잠시라도 무기력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의 광대하신 원력과 샘솟는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인욕의 마음과 깊은 선정의 힘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잠깐이라도 좌절과 실의에 빠져 힘겨워할 때는 부처님의 금강석과도 같은 용기와 불퇴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이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갖게 하여 그간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mark>휘하</mark>기를 서원<mark>합니</mark>다.

시험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동참 원력이 함께하기에 시험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안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52년 8월 8일,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

